

아파트값 거품 부추기기 '게 섰거라'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효천지구 우미린 당첨자 계약 불법행위 기승 우려 따라 전주시, 무자격 중개행위·뺏다방 등 특별단속 나서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효천지구 우미린 당첨자 계약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뺏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

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식 청약에 입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일명 '뺏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도 만연해 주택분양기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해 지역 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효천지구 우미린

계약 시기인 11일부터 3일간 시청과 구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반 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 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뺏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무자격 중개 등 불법 중개 행위 부동산거래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단속결과 '뺏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모델하우스 주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뺏다방)에서 이뤄지는 청약 관련 불법행위와 다중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전단지 배포 및 무자격 중개행위 등 총 7건을 적발해 엄중 주의조치했다.

김중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암묵적인 분양권 관리금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 신고 차단 등 부동산거래의 건전화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3D프린팅·드론 등 신성장산업 육성

전주시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D프린팅과 드론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이달 중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탄소산업에 이어 드론·3D프린팅·사물인터넷·농생명 산업 등을 미래 먹거리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신성장산업 발전위원회와 출연기관 등 내·외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3D프린팅산업과 드론산업 등 5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면 전주가 정보통신기술(ICT)과 기타 산업 간 융합으로 국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도시를 경영하고 관리·운영하는 미래형 첨단도시인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전주시 입지와 여건에 맞는 스마트시티 실증 모델을 발굴하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환경과 교통, 에너지, 안전, 시설물, 농생명 등 다양한 분야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3D프린팅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교육장에서 3D프린팅 3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

대상은 학생과 기업인, 예비창업자 등 3D프린팅에 관심이 있는 시민으로 오는 12일부터 선착순 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강창수 전주시 탄소산업과장은 "전주시는 강점인 탄소산업을 3D프린팅 기술과 연계해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며 "앞으로도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를 중심으로 3D프린팅산업 중합지원체계를 갖추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모악산 터널서 차량 화재 발생

10일 오전 모악터널에서 화물차량 화재가 발생해 엔진룸이 전소됐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9시경 전주에서 순창 방향으로 터널을 통과하던 황모씨(52)의 5t 화물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분만에 진압됐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30분간 극심한 교통정체를 야기시켰다.

차주 황씨는 "터널을 지나던 중 오르막길에서 속도가 전혀 올라가지 않아 갓길에 정차시키고 원인을 찾던 도중 엔진 쪽에서 불길기 일어났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고순대, 교통사고예방 간담회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가 봄 행락철 여행객 증가를 맞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로공사와 9지구대는 졸음운전과 나들이 대형 관광버스에 의한 대열운행, 음주가무 행위 등 교통사고 발생위험 증대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국 대형버스 사고는 246건으로 4~5월에 51건이 발생하여 21%를 차지하고 대열운행이나 음주가무 행위 등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어 그만큼 대형사고 위험이 커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방홍 9지구대장은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공감받는 소통위주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대형 교통사고야기 요인행위인 관광버스의 대열운행이나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봄꽃 활짝 완산공원, 벽화로 '빛 더하다'

전주의 봄이 가장 화사하게 피어나는 완산공원 입구가 전북대 학생들이 그린 벽화로 빛을 더하게 됐다.

전북대와 코이카, 전라북도 3자 협력을 통해 전북대 내에 설립된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이옥현)가 올해 첫 봉사활동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완산공원 입구의 벽을 화려한 그림으로 물들인 것.

이번 벽화 봉사에는 전북대 무역학과 봉사동아리팀 '너나올' 과 개인 참여 학생, 코이카 해외봉사단 귀국단원 커뮤니티 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단원들은 수일 동안 손수 바탕색을 칠하고 밑그림에서부터 채색에 이르기까지 유동인구가 많지만 그

간 허름하게 방치돼 있던 완산공원 입구 30m 벽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물들이며 이곳을 명소 중의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홍동욱 완산동장은 "이번 벽화 봉사활동이 완산공원 주변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4월 중순에 시작되는 완산공원 꽃동산 축제와 어우러져 주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벽화 봉사활동을 지켜본 동네 주민들도 벽화 그리기에 구슬땀을 흘리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밝은 얼굴로 감사함을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매년 봄이면 꽃 대궐을 이루는 완산공원 초입을 우리 손으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 뿌듯했다"며 "무엇보다 마을 주민을 비롯해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새 봄 선물을 드린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전라북도-KOICA-전북대학교 3년간 협력약정 체결을 통해 2016년 1월, 전북대학교 내에 설립되었다.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ODA 사업에 지방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설된 센터는 각종 ODA사업 및 모집 설명회, ODA이해증진 및 세계시민교육, 사업 참여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북 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날 무시해?" ... 지인 때려죽인 60대 집유 5년

자신을 무시했다며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출회한 상태로 지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씨는 2016년 9월 16일 오후 5시 15분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지인 A씨(61)가 자신의 인사를 받지 않았으며 막걸리를 뿌리고 A씨의

몸통을 우산으로 10여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A씨는 사건 10일만에 숨을 거뒀다.

조사결과 이씨는 "A씨가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무겁지만,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장수 공사수주 댓가 뇌물받은 퇴직 공무원 붙잡혀

장수군에서 퇴직 직전 공사수주를 대가로 조경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퇴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공사수주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조경업자로 부터 90만원을 받은 퇴직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을 앞둔 지난해 6월 조경업자 B씨에게 '국토공원화 사업'의 수주를 돕는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2월 원주군 소속 공무원이 공사수주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 공무원도 만났다는 조경업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완주와 장수 이외에도 이 조경업자가 공사를 진행한 또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